

# 경제주평

- 중국인 관광객 회복 지연 원인과 시사점  
- 시나리오별 중국인 관광객 규모 및 경제효과



## Executive Summary

### □ 중국인 관광객 회복 지연 원인과 시사점 - 시나리오별 중국인 관광객 규모 및 경제효과

#### ■ 기대에 못 미치는 중국인 방한객 회복세

지난 8월 중국 정부의 한국 단체관광 허용으로 국내 경제 활력 제고, 여행수지 개선 등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었으나 현재까지 그 효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올해 1월 중국 정부는 제로코로나 정책 폐기와 함께 자국민 해외 단체관광을 허용하였으며, 8월에는 한·미·일을 포함한 총 138개국으로 허용국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허용과 중추절, 국경절 특수(9.29.~10.06.) 등에도 불구하고 9월 현재까지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회복세는 미미해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9월 현재 방한 상위 4개국(일본, 미국, 대만, 베트남)의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84.1~106.7%까지 회복되었으나, 중국은 48.8%로 크게 부진한 상황일 뿐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 수 또한 2023년 평균 월 14.4만 명으로 단체관광이 불가능했던 2017년~2019년 평균(월 41.6만 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반여행수입이 둔화함은 물론 중국인 방한객 소비 증가에 따르는 내수 진작 현상 등에 의한 경제 활력 제고 효과 발생 시기가 기대보다 지연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방한 중국인 관광객 회복 지연 현상의 원인을 살펴보고, 2024년 시나리오별 전망을 통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 중국인 방한객 회복 지연 원인

##### ① 중국 경제주체의 체감경기 악화

중국의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부진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둔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중국은 주요 실물경기 관련 지표들이 악화되는 등 미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경기판단의 선행지표인 제조업 PMI(Purchasing Manager's Index; 구매관리자지수)는 지난 4월 50p를 하회하면서 위축 국면에 진입한 이후 10월에도 49.5p를 기록하였다.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소비자신뢰지수 또한 2022년 4월 86.7p로 기준선(100p) 이하로 크게 하락한 이후 2023년 9월 87.2p를 기록하며 부진한 흐름이 장기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소비자의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도 최근 둔화하는 흐름을 보여 향후 중국인 소비자들의 체감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로코로나 정책 중단과 함께 국경 봉쇄 해제, 국제선 항공편 증편 등 해외여행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관광객의 해외여행 수요 회복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중화권(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순수 해외 국가로의 출국 비중은 2023년 3분기 40.9%로 2019년 3분기 61.3%에서 크게 둔화하

였으나, 철도를 이용한 국내 여객 운송은 전년동기대비 95.8%나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는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가 악화하면서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의 보복여행 수요가 해외 대신 국내로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 ② 방한 중국인의 특징 변화

**개별여행 선호도가 증가하고 연령층도 낮아지는 등 방한 중국인의 특징이 변화하  
였다.** 전반적으로 중국인의 단체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함에 따라 중국인의 한  
국 단체관광 재개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중국  
인의 단체여행 비율은 20%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3년 3분기에는  
13.8%까지 하락하였다. 또한, 방한 중국인의 경우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2017년  
3월) 이전에는 다른 여행지보다 한국 단체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나, 최근에는  
다른 여행지에 비해 선호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한 중국인의 연  
령층도 이전에 비해 낮아지면서 과거만큼의 관광수입이 창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중 30세 이하 연령층 비율은 2023년 40.6%로  
2015년 및 2019년 대비 약 4.8~5.0%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30세 이하인 방한  
중국인의 1일 평균 여행 지출 경비(2019년 기준)는 약 331달러로 다른 연령층의 평  
균 경비인 약 346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 ③ 여행지로서의 경쟁력 약화

**중국인이 한국 이외 방문을 고려한 일본, 태국 등과 비교해 보면 위안화 대비 환  
율, 물가 등 한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인이 한국  
외에 방문을 고려한 나라는 일본, 태국 등으로 이들 국가와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통화 대비 강세인 원화, 가파르게 상승한 한국의 소  
비자물가 등은 방한 수요를 제약하고 있다. 2019년 대비 2023년 엔화/위안화 환율  
상승률은 24.3%에 달할 정도로 위안화 대비 엔화의 가치가 특히 크게 하락하였으  
며, 이는 일본 여행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일본 및 태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 관광객에게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관광산업이 발달한 일본 및 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외국인  
친화적인 관광 인프라, 중국 내 험한 정서 확산 등의 요인으로 중국인의 한국 관광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 ■ 2024년 시나리오별 전망

**2024년 기준 시나리오별로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관광수입을 추정해 본 결과,  
약 30~90억 달러(2022년 명목 GDP의 0.2~0.5%)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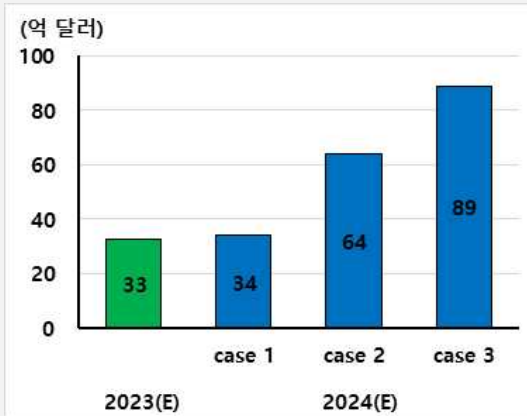
관광수입(=일반여행수입/방한 외래관광객 수), 중국인 관광객 수, 전체 외국인 관광객 대비 중국인 관광객 여행지출경비 수준(1인기준, 평균) 등을 활용하여 산출한 수준이다.

< 전망 시나리오 >

시나리오	설명
case 1	전체 관광객 대비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2023년 수준을 유지할 경우
case 2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7~2019년의 수준을 회복할 경우
case 3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 이전인 2014~2016년의 수준까지 증가할 경우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관광수입 전망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관광수입은 일반여행수입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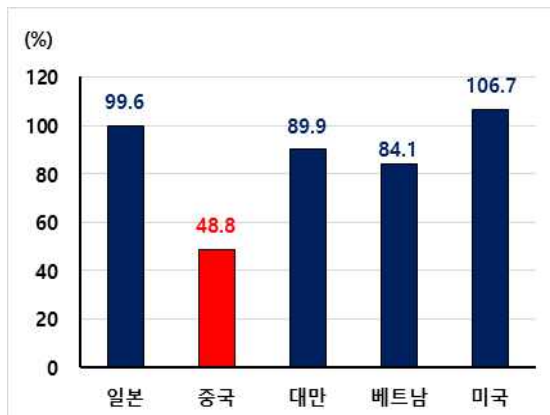
■ 시사점

중국인 관광객 회복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중국인 관광객의 특성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 마련은 물론 국내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첫째, 중국인 관광객 특성이 유커(游客; 단체 관광객)에서 산커(散客; 개별 관광객)로 변화한 만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는 다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관광 경쟁국 대비 높은 물가 수준 등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인 여건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여행의 매력도 제고를 위해 관련 물가의 안정화 대책 등이 지속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국적 다변화, 재방문을 상승 등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 1. 기대에 못 미치는 중국인 방한객 회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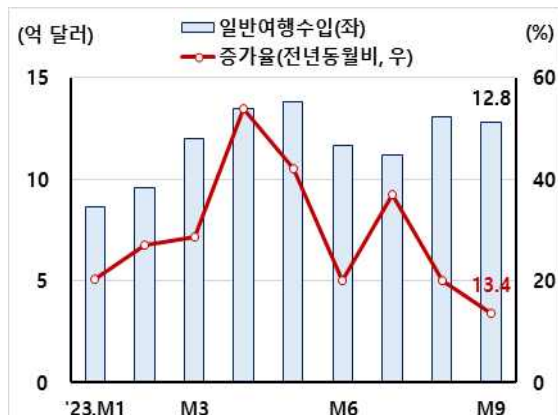
- 지난 8월 중국 정부의 한국 단체관광 허용으로 국내 경제 활력 제고, 여행수지 개선 등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었으나 현재까지 그 효과가 미흡한 상황
  - 2023년 중국 정부는 제로코로나 정책 폐기로 자국민 해외 단체관광을 허용
    - 올해 8월에는 한·미·일을 포함한 138개국으로 허용국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2017년 3월 사드 배치 이후 약 6년 5개월 만에 허용국에 포함
  - 한편,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단체관광 허용과 중추절, 국경절 특수(9.29~10.06.)에도 불구하고 9월 현재까지 타 국적 방문객 및 과거 규모 대비 회복이 부진
    - 9월 현재 방한 상위 4개국의 방문객 수는 코로나19 이전(2019년 9월) 대비 84.1~106.7%까지 회복하였으나, 중국은 48.8%로 크게 부진한 상황
    - 중국인 관광객 수 또한 2023년 평균 월 14.4만 명(9월 현재 기준 26.4만 명)으로 단체관광이 불가했던 2017~2019년 평균(월 41.6만 명)에도 미치지 못함
  - 이에 일반여행수입이 둔화하는 등 기대되었던 경제 활력 제고 효과가 지연
    - 9월 이후 중국인 관광객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방한 중국인 증가 부진으로 관광수입 증가세가 둔화하며 9월 12.8억 달러에 그침
- 본 보고서는 중국인 관광객 둔화 현상의 원인을 살펴보고 시나리오별 전망을 통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방한 관광객 상위 5개국 회복률 >



자료 : 한국관광공사,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19년 9월 대비 2023년 9월 기준.

< 일반여행수입 및 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 2. 중국인 방한객 회복 지연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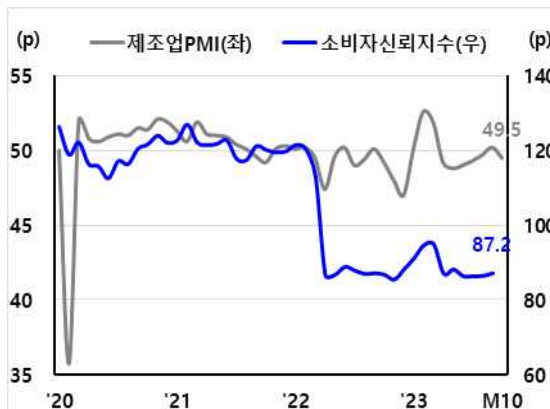
### ① 중국 경제주체의 체감경기 악화

○ 중국의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부진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둔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최근 중국의 주요 경기 관련 지수가 악화하면서 향후 불확실성이 확대
    - 향후 경기를 판단하는 제조업 PMI는 지난 4월 50p를 하회하며 위축 국면에 진입한 이후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며 10월에도 49.5p를 기록
    -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소비자신뢰지수 또한 2022년 4월 86.7p로 크게 하락한 이후 2023년 9월 현재까지 기준선(100p)을 하회
    - 특히, 소비자의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도 최근 둔화하는 흐름을 보여 향후 중국인 소비자들의 체감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큰 상황
- ※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 ('23.Q1) 3.8 → (Q2) 5.8 → (Q3)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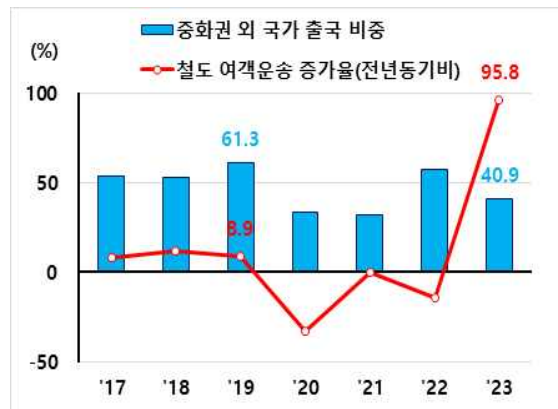
- 제로코로나 정책 중단과 함께 국경 봉쇄 해제, 국제선 항공편 증편 등 자국민 해외여행 여건이 개선되었으나, 중국인 해외여행 수요는 회복세가 미흡
  - 중국인의 대 중화권 외 국가 출국 비중은 2023년 3분기 40.9%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둔화한 반면, 국내 여객 철도운송은 전년동기대비 95.8% 증가
  - 이는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 악화로 중국인들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보복 여행 수요가 해외 대신 국내로 집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함

### < 중국 제조업 PMI · 소비자심리지수 > < 중국인 관광객 출국 및 철도 운송 >



자료 : Bloomberg.

- 주1) 제조업 PMI는 50p 기준
- 주2) 소비자신뢰지수는 100p 기준.



자료 : Bloomberg,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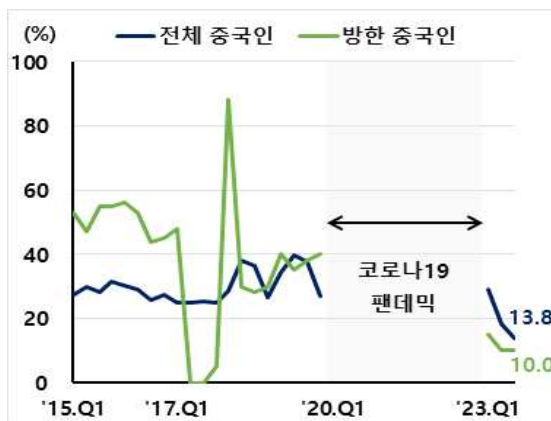
- 주1) 중화권은 홍콩, 마카오, 타이완
- 주2) 각 연도 3분기 기준.

## ② 방한 중국인의 특징 변화

### ○ 개별여행 선호도 증가, 낮아진 연령층 등 방한 중국인의 특징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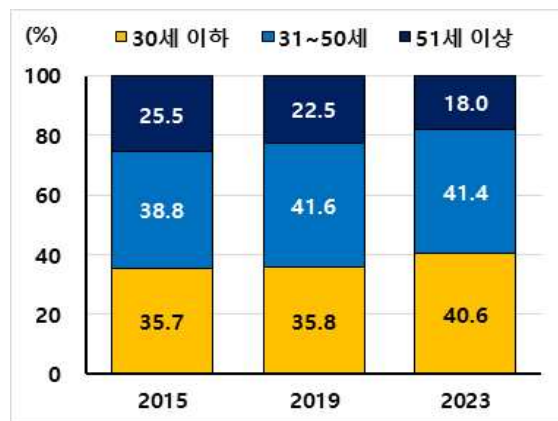
- 전반적으로 중국인의 단체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함에 따라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재개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
  -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중국인의 단체여행 비율은 20%를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하였으나 2023년 3분기에는 13.8%까지 하락
  - 또한, 방한 중국인의 경우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2017년 3월) 이전에는 단체여행 비율이 과반수에 달할 정도로 다른 여행지보다 한국 단체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나, 최근에는 다른 여행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중국인의 선호 여행 유형이 개별여행으로 변화함에 따라 한국 단체관광 재개에도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 방한 중국인의 연령이 과거 대비 낮아지면서 평균 여행 지출 경비 또한 감소
  - 30세 이하인 방한 중국인의 비율은 2023년 40.6%로 2015년 및 2019년 대비 약 4.8~5.0%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한편, 30세 이하인 방한 중국인의 1일 평균 여행 지출 경비(2019년 기준)는 약 331달러로 다른 연령층의 평균 경비인 약 346달러보다 낮은 수준<sup>1)</sup>
  - 방한 중국인의 연령이 젊어지면서 과거만큼의 관광수입이 창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중국인의 단체여행 비율 >



자료 : Bloomberg.

< 방한 중국인의 연령별 구성비 >



자료 : 통계청.

- 주1) 방한 중국인 중 승무원 제외
- 주2) 2023년은 9월까지의 평균.

1) 체류 기간 61일 이상인 자 및 지출 경비 이상치 제외.



### ③ 여행지로서의 경쟁력 약화

○ 중국인이 선호하는 관광 경쟁국에 비해 환율, 물가 등 한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판단

- 중국인이 한국 외에 방문을 고려한 나라는 일본, 태국 등으로 이들 국가와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2019 외래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은 일본(70.8%), 태국(12.1%) 등과 비교한 후 한국을 여행지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남
- 다른 통화 대비 강세인 원화, 가파르게 상승한 한국의 소비자물가 등은 방한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
  - 2019년 대비 2023년 원화/위안화 및 바트/위안화 환율 상승률은 각각 9.7%, 9.1%를 기록한 한편, 엔화/위안화 환율 상승률은 24.3%에 달함
  - 위안화 대비 모든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였으나 위안화 대비 엔화의 가치가 특히 크게 하락하며 일본 여행 수요 증가
  - 또한,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일본 및 태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하며 관광객에게 부담으로 작용
- 이외에도 관광산업이 발달한 일본 및 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외국인 친화적인 관광 인프라, 중국 내 험한 정서 확산 등의 요인으로 중국인의 한국 관광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보임

< 각국의 위안화 대비 환율 상승률 >

통화명	위안화 대비 환율		상승률
	2019년	2023년	
원화(KRW)	168.7원	185.1원	9.7%
엔화(JPY)	15.8엔	19.6엔	24.3%
바트(THB)	4.5바트	4.9바트	9.1%

자료 : Bloomberg,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23년은 9월까지의 평균.

< 각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



자료 : Bloomberg.  
주 : 전년동월대비 기준.

### 3. 2024년 시나리오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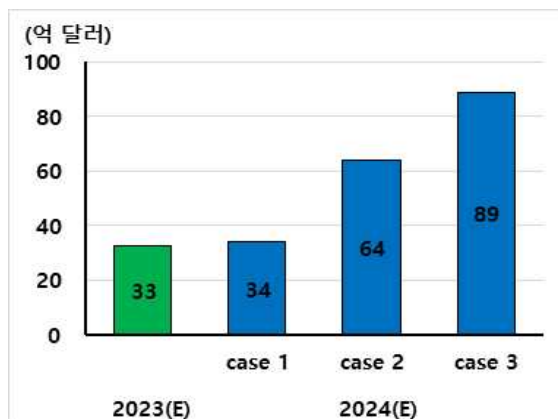
- 2024년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관광수입은 약 30~90억 달러로 2022년 명목 GDP의 0.2~0.5% 수준일 것으로 추정
-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관광수입(일반여행수입)을 중국인 관광객 수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추정
  -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관광수입은 1인당 관광수입(=일반여행수입/방한 외래 관광객 수), 중국인 관광객 수, 전체 외국인 관광객 대비 중국인 관광객 여행지출경비 수준(1인기준, 평균) 등을 활용하여 추정
- 2024년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관광수입은 약 30~9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case 1) 전체 관광객 대비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2023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관광수입은 약 34억 달러에 이를 전망
  - (case 2) 중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경우, 약 64억 달러의 관광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 (case 3)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 이전 수준까지 증가할 경우,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관광수입은 약 89억 달러에 달할 전망

< 전망 시나리오 >

시나리오	설명
case 1	전체 관광객 대비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2023년 수준을 유지할 경우
case 2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7~2019년의 수준을 회복할 경우
case 3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 이전인 2014~2016년의 수준까지 증가할 경우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관광수입 전망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관광수입은 일반여행수입을 의미.

< 참고 > 2024년 시나리오별 전망을 위한 중국인 관광객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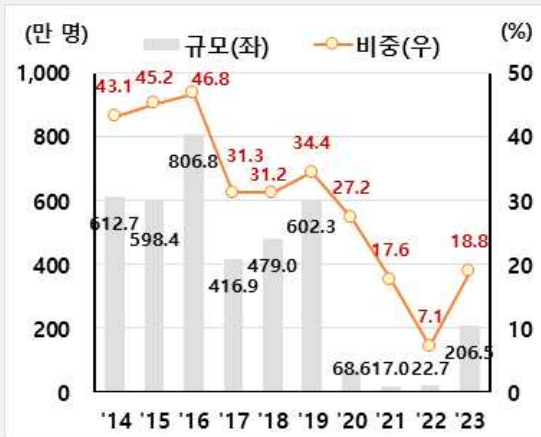
- 중국인 관광객 규모 추이

- 중국인 관광객 규모는 지금까지의 추세를 고려하면 2023년 206.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602.3만 명의 1/3 수준

- 시나리오별 2024년 중국인 관광객 규모 추정치

- (case 1) 전체 관광객 대비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2023년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는 238.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
- (case 2)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7~2019년의 수준을 회복할 경우에는 443.8만 명에 달할 전망
- (case 3)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 이전인 2014~2016년의 수준까지 증가할 경우에는 615.4만 명까지도 회복 가능할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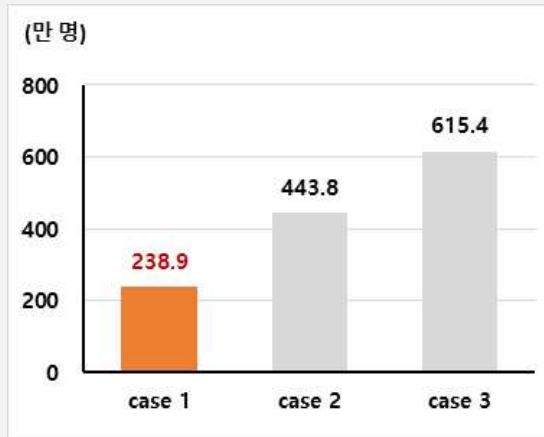
< 중국인 관광객 규모 및 비중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 주1) 비중은 전체 관광객 대비 중국인 관광객 비중.
- 주2) 2023년은 추정치.

< 시나리오별 중국인 관광객 규모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4. 시사점

- 중국인 관광객 회복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중국인 관광객의 특성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 마련은 물론 국내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첫째, 중국인 관광객 특성이 유커(游客; 단체 관광객)에서 썬커(散客; 개별 관광객)로 변화한 만큼 코로나19 이전과 다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 중국의 경기 여건 악화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해외여행 수요가 약화된 가운데 주요 여행 연령대가 중장년층에서 20·30대로 변화하면서 여행 형태 또한 기존의 단체여행 및 쇼핑 중심에서 개별여행 및 체험 중심으로 변화
- 이에 따라 정부의 관광 활성화 대책이 기존의 면세 쇼핑, 카지노 및 크루즈 등 단체관광 중심이었다면, 개별여행자의 다변화된 여행 수요에 맞게 세부적, 미시적인 관점에서 재점검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자체 및 관광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기존의 명동 등 대표 관광지역은 물론이고 지역별 핫플레이스, 원데이클래스 등 체험 상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변화한 관광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필요

둘째, 관광 경쟁국 대비 높은 물가 수준 등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인 여건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여행의 매력도 제고를 위해 관련 물가의 안정화 대책 등이 지속 추진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경우 태국, 일본 등 주요 관광 경쟁국 대비 높은 수준의 여가 관련 물가가 지속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 이에 서비스 관련 물가의 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숙박 및 교통 비용 관련 지원책 검토 등을 통해 중국은 물론이고 외국인 관광객 전반의 여행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

- 또한,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 결제 시스템 개선, 관광 정보 접근성 강화 등 외국인 친화적인 인프라를 통해 한국 관광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함

셋째,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국적 다변화, 재방문을 상승 등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 2023년 현재 일본, 중국, 미국 국적의 방한 외국인이 전체의 48.1%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재방문율(2019년 기준) 또한 58.3% 수준에 그친 상황
- 중장기적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넘어 외국인 관광객 전반에 매력적인 여행지로 인식되기 위해 다국적 외국인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의 개발에 주력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한류, 의료 등 관광자원의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하며,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임 **HRI**

신 지 영 선임 연구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 시 연 선임 연구원 (2072-6248, syroh@hri.co.kr)